



5면  
자전거로 전주서 제주까지  
새내기 만나러 가는 대학교수들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번 2길 6번지

## '스타트업 전북 창업대전' 막올라

### 4주간 온·오프라인 다양한 창업프로그램 운영 지역 창업 붐 확산·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시도

도내 스타트업 붐을 위한 '스타트업 전북 2020 창업대전'의 막이 올랐다.

Start-up 전북 2020 창업대전이 20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일원에서 '스타트업으로 생동하는 전북경제'라는 주제로 개막식이 진행됐으며, 앞으로 4주간 도내 전역에서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그동안 개별기관 단위로 추진되던 창업·벤처 프로그램을 '전북 창업·벤처 주간(이하 Start-up Week)'을 지정해 대학,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등 민간이 주도적으로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북도 및 전북중소벤처기업청 등이 지원하는 체계로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5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도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전주시, 군산시가 주최하고 전북대 창업지원단, 전주대 창업지원단, 군산대 창업지원단,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창업공유지원센터, 전북창업보육센터협의회(16개 B) 등 37개 도내 창업유관기관이 주관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침체될 수 있는 창업 붐 확산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혁신적인 로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민간중심의 산·학·민·관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뒀다.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전북도 전역에서 스타트업과 관련한 37개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20일 개막식 행사에는 창업주간을 알리는 '스타트업 선포식'을 시작으로 백크샐러드 김태훈 대표와 전북도 14개 시군의 청년 스타트업 및 창업지원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 스타트업의 대응전략을 논의하는 '청년 스타트업 랜선 Meet-up' 행사가 실시간 온라인으로 생중계 됐다.

이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 목표 달성을 위한 혁신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효남관(전

북, 광주, 전남) 로컬 크리에이터 30개사와 관계기관이 모여 '지역 소셜벤처 성장과 혁신생태계'에 대해 논의하는 '효남관 소셜벤처 이니셔티브 포럼'이 진행됐다.

이외에도 소셜 벤처기업의 성장과 투자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효남 소셜

이노베이션 에코리그 임팩트 IR 데모데이'와 '2020 전북투자벤처 로드쇼'가 진행되며, 사업화자금 지원 등 도약의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JB 구매 상담(포럼)회'에는 도내 창업기업이 대형유통망 MD들과 비대면 형식으로 1:1 온라인 상담장을 운영했으며, 후속으로 자금지원, 지적 재산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도 이종훈 일지리경제정책관은 "지난 5년간 전북도의 스타트업은 매

년 꾸준히 성장해 왔고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시도를 진행 중이다"면서 "앞으로 작은 강점들을 하나로 집중시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 측면의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Start-up 전북 2020 창업대전'의 주요프로그램 등 자세한 사항은 'Start-up 전북 2020' 공식홈페이지(www.jbstar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호상기자



'Start-up 전북 2020 창업대전'이 20일 전북대학교 진수당 일원에서 '스타트업으로 생동하는 전북경제'라는 주제로 개막식이 진행됐으며, 앞으로 4주간 도내 전역에서 다양한 창업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30일까지 접수하세요

###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25% 이상 감소 가구

정부의 4차 추경에 따라 추진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현장 접수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실직과 휴·폐업 등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지만,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이다.

대상은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3억5천만원(농어촌 3억원) 이하이면서 근로자(사업자)소득이 25% 이상 감소된 가구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 점포제도전장령금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상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긴급생계지원금의 접수를 '요일제'로 운영토록 권고했으나, 전북도는 도민들의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월~금까지 대상자면 누구나 접수 가능토록 했다.

대상자는 신청서 제출 시, 신청

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세대원 포함)를 작성하고 개인의 소득 감소에 대한 증빙서류(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한다.

기타문의는 해당 주민등록지 시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T/F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복지로(http://bkjira.go.kr)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복지로(m.bkjira.go.kr)를 통해서도 매일, 24시간 10월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내용은 해당 가구의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뒤 11~12월에 1회에 한해 지급된다.

오택립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신청편의를 위해 요일제 없이 매일 현장접수가 가능토록 했으며, 앞으로도 현장접수에 따른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 전북도, 태풍 피해 벼 매입 추진

### 21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전북도는 올해 태풍 대비와 미야삭, 하이선으로 피해를 입은 벼 재배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피해 벼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태풍 피해 지역의 피해 벼 시료를 분석·조사해 제현율과 피해립 수준을 감안, 잠정등의(A, B, C) 규격을 확대 신설함에 따라, 전북도는 농

가의 희망물량을 전량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가격은 등급에 상관없이 중간정산급(2만1원/30kg)을 수매 직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은 매입가격이 최종 확정된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잠정등의 A등급은 공공비축미 1등급 매입가격 기준의 71.8%,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피해 벼 최종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80kg)을 비값(40

kg)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공공비축미 1등급 가격을 산정한 후 잠정등의 등급별 가격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태풍 피해벼의 매입을 추진한 사례가 있으며, 전북도의 경우 총 5,114톤을 매입한 바 있다.

피해 벼는 공공비축미보다 우선해 매입하며, 매입을 별도 지정해 태풍 피해품만 매입한다. 피해 벼는 건조벼(30kg 600kg 포대)로만 매입하고, 농가의 편의를 위해 지역여건에 따라 농협 RPC가 농가로부터 산물 형태로 매입·건조 후 포장 작업을 한 경우에도 수매 참여가 가능하다.

물량배정이나 품종제한(찰벼 포함, 단, 유색 벼와 가공용 벼는 제외) 없이 잔류농약 검출 위반 농가의 수매 참여도 가능하다.

전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피해 벼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자 농식품부에 피해 벼 전량 매입을 건의하고, 이를 수용해 희망물량을 수매하는 것"으로 "피해 벼가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낮은 품질의 저가미 유통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27일부터 전북도 건축문화제

전북도가 (사)전북도건축문화진흥원 협회와 공동으로 도의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해 대내외에 알리고 미래의 건축 인재 육성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1월 1일까지 6일간 '건축·천년의 숨소리'를 주제로 '전북도 건축문화제'를 개최한다.

스물한 번째를 맞는 '전북도 건축문화제'는 대면행사를 취소하거나 최소화하고 전주시 전주 덕진공원 야외 전시장으로 변경했다. /유호상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의회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고창군의회